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같이

내려놓음

주가 일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2:37-42

다같이

말씀선포

“진짜가 나타났다”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6주년)입니다. 6년 전에 우리 한울림교회를 있게 하시고, 지난 6년간의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부터 현장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5월 27일부터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현장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현장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 정부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교인을 두 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는 ‘강경호형제~오지영자매’이고, 2조는 ‘오현석형제~황희경자매’입니다. 가나다순으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조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예배당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드리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친교 시간은 따로 없으며 직접대면하지 않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행동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서둘러서 현장예배를 정상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개월 혹은 100일이면 사람의 습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반을 현장예배 없이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영상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계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예배를 가능한한 빨리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은 상존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현장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불 나올 수 없는 분들은 현장예배와 병행하는 영상예배를 통해서도 진정과 정성으로 소홀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4,742